

EP_01_(여)한적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다.
리듬에 몸을 맡기며 그에게 건넬 말을 상상해본다.
그러다 문득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다
남자를 보고 놀란다.

여자 어?
 (이어폰을 빼며) 안녕하세요.

여자 [na] [언제 왔어?]

남자 안녕하세요.

창피함에 감추려 주변을 둘러본다

여자 언제 오셨어요?

여자 [na] [어디까지 봤지?]

남자 어... 방금 왔습니다.

여자 [na] [다 봤네]

여자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여자 [na] [어떻게 물어봐?]

남자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걱정이 들었고 창피했다.
억지로 하늘을 보며 손가락으로 바람을 느껴본다.

여자 이젠 날씨가 완전 여름이네요.

남자 그러게요.

남자의 대답 후 대화가 끊어진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할까 생각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 이런 날씨엔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캔 마시면 좋지 않아요?

여자 맥주...

그녀는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좀 바뀔지도...

남자 일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 할 친구가 없어서 허전하더라구요.
 괜히 편의점에서 맥주 먹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기도 하구요.

여자는 맥주를 좋아하는 척 해보기로 한다.

여자 퇴근 후 맥주...
 (소주 끝맛을 상상하며) 크으~

남자 (여자가 귀여워서) 하하

여자는 남자가 웃자 용기가 났다.

여자 나도 그런데...

말끝을 흐리고 한참을 더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여자 음... 그럼 오늘 시간되면 맥주 한잔 어때요?

남자 (낮설어) 네?

남자의 되물음을 듣고 겨우 했던 말을 다시 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다.
다시 용기를 내보려 손에 힘을 꼭 준다.

여자 (황설수설) 저도 이 동네에 친구가 없기도 해서...
 왜... 요즘 당근마켓에서 친구 구하고 하잖아요,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친구도 없고...

남자 (망설인다) 어... 그게... 어.

한참을 뜯들이는 반응에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다.

여자 싫어요?
 (실망) 싫음 말구...

남자 아니, 싫은게 아니라 남자친구 있지 않아요?

여자 응? 제가요?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음?

여자[na] **[내가 언제 그랬지?]**

남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주쯤에 어떤 남자가 연락처 물어보니까 남자친구 있으시다고...

여자 (기억이 난다) 아~? 아! 맞아!

여자[na] **[그걸 기억하네? 나한테 관심 있었나?]**

그녀는 살짝 기분이 좋아져 미소를 짓는다

여자 없는데 있다고 했어요.

남자 어?

여자 거절할 이유를 말하는게 어려워서. 히히.

남자 (멋쩍은 웃음) 하.하.하.

여자는 긴장해 침이 바짝 말랐다. 떨어지지 않는 입을 힘들게 연다.

여자 음... 그 쪽은 여친 있어요?

남자 (당황) 예?... 하하하... 그게...

망설이는 남자의 반응에 여자의 눈동자가 커진다.

여자 어? 여친 있어요?

여자[na] [거절인가?]

손을 흔들며 강한 부정을 하는 남자

남자 아뇨, 없어요. 여자친구...

여자 (한숨을 쉬며) 후우

여자[na] [왜 망설이냐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 놀랬잖아!]

그녀는 남자의 망설이는 반응에 마음에 안들면서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되는 본인의 이중적인 마음이 신기했다.

남자 (웃으며) 그럼 오늘 맥주 한캔 할까요?

여자 (단호) 싫어요.

남자 (당황) 아...
(빨춤) 예...

여자는 살짝 장난치려고 거절했지만, 남자가 바로 수긍하자 당황한다

여자 (당황) 아니! 아니!
(손가락을 피며) 한캔 가지고 부족해서. 두캔은 해야지요.
꼭 편의점이 아니어도 괜찮고...

남자 (멍) 어...

여자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어 남자의 옆으로 쓰윽 내민다

여자 (핸드폰을 두들기며)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녀의 핸드폰에 번호를 남기는 남자, 그런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여자.

남자는 쑥스러워 하며 핸드폰을 건네고

여자는 번호를 보고 좋아한다.

전화를 바로 거는 여자

핸드폰 벨이 울리자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여자가 폰을 귀에 대고 있으니 남자도 폰을 귀에 댄다.

남자 (어색하게) 여...보세요?

여자 (웃으며) ㅎㅎ 여보세요.
이 번호 뭐라고 저장할까요?

남자 김무열입니다.

여자 아 무열씨... 그런데 제 이름은 안궁금하세요?

남자 (웃음) ㅎㅎ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자 이루리에요. 이루리

남자 이루리씨군요.

여자 그리고 말 안한게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

남자 네

여자 제가 원래 맥주를 별로 안좋아해요.
소주 마시면 안되나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는 뒤늦게 남자를 바라보고,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여자는 전화를 끊으며 얼굴을 안보이게 돌리며 기쁘게 웃는다.

-Ending